



- 새가족 주안예만남
- 성경암송을 마치고
- EM 소식
- 간증 / 기고

## ‘아들, 넌 내게 과분한 선물이었어’

### ■ 특집

#### ‘다섯 엄마의 마음’

김헬렌 집사

8, 9월은 자녀를 둔 가정들이 가장 바쁜 달이다. 긴 방학을 끝내고 새학년을 맞는 아이들의 ‘백투스쿨’을 도와줘야 하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으로, 기숙사로 떠나는 자녀들과의 헤어짐은 부모, 특히 이들을 품안에서 애지중지 키워 온 엄마들의 마음을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만든다. 동지에서 기른 새끼를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빈 동지를 바라보는 어미새의 마음이랄까...

주안예신문 이달 특집으로 ‘다섯 엄마의 마음’을 마련했다. 대학으로 보내는 엄마들과, 주안예세마장학회에서 지난 8개월간 진행한 자녀들의 성경암송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느낀 엄마들의 글에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묻어난다. (편집자 주)

지난주에는 브랜든을 기숙사에 보내고난 후 처음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늘 옆에 껍딱지 처럼 붙어 다니던 아이는 없고, 나 혼자 먼길 운전해서 교회로 오는 내내 느낌이 이상했다. 아이는 ICY 예배 나는 어른 예배, 늘 이렇게 따로 드렸고 교회에 라이드 갈 때만 함께했던 동행인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외롭고, 허탈했다. 그렇게 드리기 시작한 예배에 결국 난 눈물바다가 됐다. 그냥 모든게 미안하고 아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났다.

아이가 유치원 때였다.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늘 일을 해야 했던 나는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아이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했다. 교육상 집에 TV를 두지 않았던 나는, 토요일에도 함께 출근 해야 했던 아이에게 포터블 DVD 플레이어를 사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 DVD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늘 그옆에는 작은 도시락통을 가져다 놓았고, 아이가 원할 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거리가 들어 있었다. 집에서 TV를 접할 수 없었던 아이는 토요일을 기다릴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신나했다. 그 덕분에 난 토요일에도

아이로부터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다. 매주 우리 모자는 이렇게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를 보며, 물밀듯 밀려오는 미안함이 생겼다. 다른 아이들처럼 토요일에 집에서 퐁퐁 할 유치원 아이를 엄마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매주 토요일에 같이 출근시키는 것 같

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때 아이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며 약속한 말, "브랜든 너가 4학년이 되면 엄마가 풀타임 맘이 되어줄거야.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너를 학교에서 픽업하고 너한테만 신경을 쓸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던 아이는, 그냥 고개만 끄

덕덕덕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우리는 그날 잊을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나는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이 일을 했다. 미국 방방곳곳에 사무실을 차렸고 몇 십만불되는 연봉도 벌게 되었다. 그렇게 일에만 집중하면서 출장이 잦았던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보모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다. <12면에 계속>



<지난 6월 고교를 졸업한 브랜든과 함께>



■ 한글학교 가을학기 개강

## 체계적 학습 · 운영 통해 ‘정식학교’ 로 발돋움

주안에 한글학교는 한글을 배우고 익히며 자녀들이 자신의 모국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폭넓은 언어, 문화,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자 하는 교육목적으로 세운 2019년에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교입니다.

2021년 가을 학기부터는 기존에 목장모임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의미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정식 학교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며 다음세대의 신앙계승, 자녀들의 언어 교육을 함께 가르치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써 준비된 교사들과 함께 자녀들의 교육을 공유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2021 가을학기 안내

• 수업기간: 9월 12일-1월 16일 2022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신년 휴강을 제외한 총 16주)

• 신청기간: 8/8-9/5 (신청서 안내문 배부: 분당, 친교실 앞 테이블)

• 일시 및 장소: 벨리 2부예배 후 1시 30분~4시(2시간 반: 예배변동시 시간 조정), 벨리채플

• 대상: 5세 부터 성인까지 (외부 학생 등록 가능함)

• 회비: 1학기 \$150(2nd- \$140, 3rd- \$130)



• 수업내용: 초,중,고급 한국어, 문화, 예절, 특별활동 등  
• 교장 및 교사 : 오승현, 장은경, 이정미, 류명수, 이현영, 김형선, 장정보(행정)  
• 문의: 오승현 목사(714-746-7272)와 장정보 권사(818-631-4755)

■ 교우동정/ 문성훈 집사 · 문수경 권사



### ‘텍사스에서 꽃핀 사랑의 만남’

8월7일(토) 문수경 권사 내외와 아들 사무엘이 텍사스로 이주한 이규혁&유문영 집사 가족과 반가운 만남을 갖았다.

이규혁 집사 가족이 5월 14일 정들었던 캘리포니아를 떠난지 거의 3달만에 갖는 만남이었다. 근처 레스토랑에서 두가족이 만나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문권사는 늘 베푸는 사람답게 유문영 집사의 친정아버지를 위해 족발까지 진공포장해서 공수해 갔으며 텍사스에서 만남도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가서 써프라이즈 하는 바람에 기쁨이 두배가 되었다는 후문을 들었다. 전 목원이지만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먼곳까지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훈훈해진다.

| 이성은 기자 |

■ 문서국 편집미팅



### 사랑 받는 ‘주안에신문’ 진지한 논의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되고 모이지 못했던 문서국 모임을 1년 반만에 하게 되었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 따뜻한 국밥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EM 소식을 담아주실 모니카 김 권사가 새로 합류하게 되어, 더욱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오히려 국장과 많은 기자들의 수고로 주안에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 감사하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교인들의 소식이 더욱 궁금한 이때, 좋은 소식이나 기사 거리를 적극적으로 나눠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글로나마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여러가지 다양한 나눔의 글로 주안에교회 교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주안에 신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 류명수 기자 |

■ 주안에만남



## 긴 팬데믹 속에서도 이어진 새가족들 발걸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도 말씀을 사모해서 주안에교회를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 풀리고 난후 지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벨리채플 친교관에서는 새롭게 등록한 분들을 위한 환영회 형식의 “주안에만남” 이 거의 1년 반 만에 진행 되었다.

벌써 20회를 맞이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의 시종을 주관하는 새가족 사역국의 움직임은 일사불란 했다.

모두 30여명의 새가족분들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하셨으며 예쁜 테이블 세팅

에 앉아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담소로 행사의 시작을 기다렸다.

첫번째 순서인, 담임 목사님과 사진 한 컷은 수줍은 미소를 이끌어내며 가장 선한 모습을 연출 하기도 했다.

새가족 사역국의 국장님이신 김진석 장로님의 기도에 이어서 새가족에서 손수 준비하신 스테이크 정식으로 맛있는 식사가 시작되면서 조금은 어색함이 깃들었던 긴장이 풀려가고 있었다.

식사도중 영상을 통한 주안에교회의 교육과 나눔의 여러 프로그램들의 소개를 보면서 주안에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짐작해 보

기도 했고, 이미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있음을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자기소개 시간에 주안에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를 나눌때는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분의 소개로 오신분도 있었고 CD 나 온라인 을 통해서 접한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오시게 되었다는 분들도 있었다.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믿음생활이 주안에교회에서 안정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으로 “남이해준 밥”을 소개했던 어느 여자 집사님의 말씀에 진한 공감을 느낀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쉐마장학회

## 60여 학생들 8개월간 말씀 암송 열매 풍성

3년전인 2019년 주안에장학회가 설립된 후 3년차가 되었다. 첫 2년은 고교졸업반인 12학년과 칼리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회봉사와 에세이를 중심으로 50여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회장학 제도를 좀 더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유년부부터 칼리지까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말씀을 암송하게하고, 이를 평가해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2학년과 칼리지는 암송에 더해 종전처럼 신앙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2달간의 공지 기간에 신규약 성경 중 암송할 10장(편)을 미리 제시한 후, 금년 1월부터 매달말 참가 학생들이 장학위원들 앞에서 암송하고 평가 받는 시스템이 진행되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학습시킨 방법을 본떠 장학회 명칭도 주안에쉐마장학회로 바꾸었다. 또한 쉐마장학금 취지에 호응해 35명의 장학위원들이 4만5천달러에 달하는 넉넉한 기금을 모아 주셨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집중하지 않고서는 성경 한장도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해졌다.

모두 55명이 암송에 참여, 누적 320장에 달하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많은 학생들은 조기에 10장 전체 암송을 끝냈고, 특별 보너스가 걸려 있는 로마서 8장을 끝까지 암송한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고학생이 될수록 암송이 쉽지 않음을 보면서 성경암송



의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인지 실감되었다.

장학금이 동기가 되어 암송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게 인생 길에 빛과 등불이 되어 진리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금년 하반기에 다시 시작될 제4기 쉐마장학금 성경암송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 드린다. | 조용대 기자 |

■ 주안에만남 소감

### 진솔한 대화 큰 감동

주안에만남은 주님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안에만남 장소로 들어가는 순간 새가족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셨는지 마음이 전해졌고 큰 감동이었습니다.

빨간색 보우타이와 매치되는 앞치마를 두르신 장로님께서 저희 테이블까지 안내해주시고, 고급 레스토랑 처럼 꽃과 캔들로 셋팅된 테이블과 장로님, 집사님들의 정성과 사랑이 새가족이란 어색함을 따뜻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사진촬영 하는 순간에도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나 까지도 챙겨주시는 세심함과 정성을 다하여 사진촬영하신 권사님, 집사님 모습도 감동이었습니다.

새가족부 팀원들께서 수시로 다가오셔서 따뜻한 미소로 저희들을 챙겨주시고 쑥스러워 하시는 장로님들께서 서빙 해주신 스테이크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식사와 후식을 마친 후, 목사님이 교회방향과 목회방향을 진솔하시고, 꾸밈 없이 전해 주시는 시간은 더욱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변질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시대가 바뀌니 교회도 바뀌는것 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비원리적인 방법에 저를 방치한채 믿음생활한 것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이 원칙인 교회를 강조하시면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관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말씀들이 저를 놀라게 하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를 기억하시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갈망함을 아시고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며 마음을 다시 점검하여 말씀 중심으로 주안에교회를 섬기기를 결단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안에만남은, 저희 부부에게 새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주안에만남을 참석하기 위해 ICY 를 섬기는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놓고, 바로 부랴부랴 1시간 을 넘게 운전해 참석해보니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안에만남에 참석하신 동기 새가족들과 함께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주안에만남을 추억하며 주안에교회의 한가족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 이진화 집사 |



### 기대하지 못한 깜짝 환대



■ 주안에만남 소감



한가족 같은 오붓함으로...



배려와 섬김의 만찬

2021년 7월 25일 벨리채플 친교실에서 목사님과 새가족 성도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시간이되어 친교실에 이르자, 테이블은 새하얀 테이블 클로스위에 온통 연한 핑크빛의 장미와 양초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하얀셔츠에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분주하게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찬양도 준비되어 곧 시작되었고, 늘 들어오던 밴드와 찬양의 소리가 그 날은 더욱 성스럽게 들리며 만찬의 밤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목사님과 포토타임이 이어졌습니다. 한 가족씩 나가서 목사님과 인증샷을 '찰칵' 하고 찍는 것인데, 제 차례가 되어서 목사님에게 제가 다가가자 목사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의자 딱 붙여도 괜찮아” 라시며 바짝 다가와 저와 다정하게 멋진 한 컷을 찍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과 가까이 앉아 사진을 찍으니 교회의 온화한 분위기가 느껴져 마음이 한 걸음 크게 주님곁에 다가선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목사님과 인증 샷을 찍는 것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쳤습니다.

30여명 남짓한 새가족들은 곧 테이블에 착석하고,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정성스러운 웅숭한 식사대접이었습니다. 새가족들 한사람 한사람 일일이 찬찬히 장로님들과 봉사하는 성도들이 서브를 해주셨고, 너무 잘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VIP대접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목사님의 사회로 새가족들 각자의 자기소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소개 내용은 이름과 사는 곳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에서의 지위고하와 빈부차이를 따지지않고 오시는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 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새가족을 환영하는 말씀과, 교회비전을 듣고 훌륭하게 대접을 받은 주안에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지는 앞으로 교회에 내 믿음과 열성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는 잊지 못할 목사님과의 만찬의 밤이었습니다.

| 김영혜 집사 |

## ‘주안에교회 8년’ 하나님 은혜의 산 역사



# 코로나 속에서도 활짝 '졸업 축하합니다'



■ Korean Flair At Its Best/ Interview with Elaine Lee

*When you dance, there's meaning in it as well.*

*Contrary to Elaine's usual quiet and gentle demeanor, the performer I saw on EM's Upward Praise Night intrigued me so much that I asked for an up close interview. Elaine Lee embraced ICCC as her home church early this year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talent show as a dancer and also sang on the praise team.*

Monica Kim

Monica: I want to start off our interview with asking how long it has been since you've been coming out to ICCC.

Elaine: I've been coming since February, so I guess that's six months. I've been coming out because my parents invited me to the church when in-person services were finally opened. They had me check it out, and I loved it!

Monica: How are you liking ICCC EM?

Elaine: I like it. I like how close knit the people are here. And I like how after EM service we have small groups, and after small groups, we have time to interact and do activities and sports, which I love.

Monica: That's right. I think I first saw you getting more involved and comfortable through the sports activity.

Elaine: Yeah, I like sports.

Monica: In small group, you're more of a listener than a talker, which is a reason why it was just great to see you singing on stage with the praise team on the day of EM's Upward Praise Night. Especially, ... what do we call that wonderful dance you showed us that night? A fan dance?

Elaine: Korean cultural dance/fan dance.

Monica: Uh huh. I mean, you blew everybody away.

Elaine: Ah hahahaha... you're way too kind.

Monica: So, uhm... when did you start dancing?

Elaine: I think I got into this dance maybe three years ago.

Monica: Oh! Any particular reason?

Elaine: I got into this dance because I went to a Korean cultural event, and they were doing Korean music and Korean dance. I thought it was just so beautiful how they were putting all their emotions into the things they did with words. When they sang, there was a story behind it. When you dance, there's a meaning in it as well. And so, when I heard that there was going to be the talent show part of the night, I was asked by a few people to dance. Ultimately, I'm glad I did it. It was a time to showcase talents and give glory to God, and I think it was just really beautiful. I've never done it in a church setting, so that was really different. And the praise part as well. I've never done that as well. So, that was really nerve wracking, but it was really rewarding and



so exciting that I could worship God on stage and do it with the people that I had been practicing with for almost a month. It was an eye opener to a different side of praise. I had a good time.

Monica: Well, you know, I was around when the praise team had their practice sessions. From my perspective, I think you probably enjoyed the practice sessions the most. I saw you kind of like doing the drum beat moves, and you were freely moving your arms to the rhythm. It's a shame that I didn't have a video footage that I could show you here.

Elaine: Ah haha... I'm so glad you don't, or I would have been so embarrassed, haha.

Monica: It came across that you sincerely enjoyed the process.

Elaine: Yeah, I didn't realize how much work and effort goes behind the scenes,

even just to make preparation before the night itself. It took a lot. I definitely didn't think about that before, you know? I think it was such a great experience. I learned a lot, and there is a lot of preparation that goes even for the practice.

Monica: Well, so far, you've been with ICCC EM less than a year, but God has graciously drawn out your dancing talent and your love for singing praise. And I wonder what else he has in store for you?

Elaine: Uhm... I'm excited with where this may go because I feel like, as I said earlier, I haven't really done any of this. I usually do it outside of church. Doing the dance at church was definitely a different feeling. Knowing that it's actually for his Kingdom and to glorify Him, I think that's what made it more special. And yeah, let's see where it goes.

Monica: Do you have hobbies or special interests outside of dancing?

Elaine: Besides dancing, I like hiking. People find it weird, but I like jogging. And uhm.... I like going on food adventures for fun.

Monica: Oh? Do you like cooking more or eating more?

Elaine: I like eating, hahaha...

Monica: Hahahaha.... It's a good thing we have a chef in our EM group now!

Elaine: Oh, I know. We're so blessed. I really enjoyed that day when we did the ramen cook off. That was really fun.

Monica: It's nice to see you getting really plugged in.

Elaine: I was just amazed at how quickly I got plugged in, too. I heard through Pastor Sam that IC Now needed help, and I met with Pastor Sam and Pastor Jamie.

Monica: That's great. Kids love pretty teachers.



■ Faith Walk Series

## *Faith Walk Series Continues to Inspire*

God loves ICCC. The two latest Faith Walk speakers in August are continuous examples of God's love for us as He brings men of excellence to share their journey in Christ to encourage and uplift our community.

Stephen Oh/ Renown aerial cinematographer and CEO, Stephen has worked on many high profile Hollywood movies (just Google him). We learned how God led him away from becoming a global competitive athlete to leaving behind a chemical engineering career. Then through a series of unlikely encounters, the kind that only God orchestrates, He paved a path to where Stephen is today, exemplifying the Word in action: Proverbs 16:9 The heart of man plans his way, but the Lord establishes his steps.

Although Australia is home, Stephen's work takes him around the world on constant travel. His schedule is jam packed and many a times unpredictable given the demands of the projects; however, He shared how he prioritizes worship and keeps the sabbath day by attending church wherever he may be. We can see how God honors Stephen as he honors the Lord. We are blessed to see God's hand upon his life and blessed for ICCC to be his church community when in Los Angeles.

Hyun Kwon Kim/ As a young teen, Pastor (Ps) Kim made a covenant with the Lord - that he would earn two degrees: one of the world and one of His word (seminary) so that he can be equipped to serve God. Growing up in poverty, college seemed like an intangible luxury but God was faithful to the covenant. Not only did He provide full scholarships to this earnest and God fearing heart, God further gave Ps Kim the prestigious and coveted opportunity to pursue graduate studies under multiple Nobel Laureates, learning from the best in



the field of Pharmacology.

Ps Kim continued to equip himself earning additional degrees including the one promised in Divinity. While maintaining a successful lay career, he also kept his part of the covenant, serving the homeless in downtown Los Angeles through the Love LA Ministry and impacting those around him for the gospel. In seeking God's heart, he was led to ICCC and discovered alignment with our pastoral leadership's vision to serve the homeless in our own mission field. Another glorious testimony of God's grace and opportunity when life is surrendered in obedience.

We are inspired and challenged by these men of faith and we thank God to have Ps Kim and Stephen in our community.

| Laura Park |

■ EM Welcoming

## *"We continue with excitement in our hearts"*

Surely as the sun will set into the western sky's and will rise again the following morning at the crack of dawn, so do our life progressions. On this glorious day that good Lord has allowed, our proud EM'ers celebrated graduation to face their next stages in what we call life. Whether it be work, rest or more studies, we continue with excitement in our hearts to find the joys of the seeds that God has planted for us in our journey. And not be out done by the college grad's, the ICY seniors also graduated into EM to start serving as adults in Christ as proud Christians in the community.



Not to miss celebrating such great blessing, our EM Directors Laura and Tom Park JSN were gracious enough to open their hearts and their backyard to hold a graduation recognition event. The word and prayer, laugh-

ter and cheers, food and drinks, fellowship and sharing, smiles and cry's flowed from morning and blended into the afternoon. Thank you to everyone that participated and the glory will always be turned to God in

perfectly allowing all... Don't ever forget that your home church will always be here for you as the Holy Spirit may always walk with you. Now spread your wings and do your thing, you are in Christ.

| Alex Ham |

■ Reflection on Schema Memorization

*Best Gift We Can Give to Our Children*

What is the best gift that parents can give to their children? Money? A car? A house? Our teenage sons might shout out, "A new gaming system, dad!" Perhaps, but I learned from my many peaks and valleys of life experiences that helping our children to develop personal relationships with Christ Jesus is ultimately the best gift any parents can give.

The scripture states "Guard my teachings as the apple of your eyes" (Proverbs 7:2), and also to keep them (scriptures) deep within our hearts. I believe memorizing Bible verses is one of the best ways to enhance our faith and spiritual lives. So, when our church announced the upcoming "In Christ Shema Scholarship," our sons were already memorizing few quick and easy verses such a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Philippians 4:13). This exact verse will now be put to test. The 10 assigned verses were long and challenging; additionally, the extra bonus part of reciting entire Romans 8 (almost 1,000-word counts) seemed impossible! Both gasped in shock seeing how many words they had to memorize; they needed another reminder of Philippians 4:13.

Lord, please give my sons wisdom and self-control; they really want to honor You by doing this, I prayed.

Once their initial shock was over, I told them that when God gives you a task, He never does so without first equipping you with the ability to carry out that task. We took this as a task from God.

I told my sons that this is a small mission from God; let's honor Him by doing this challenge--let's do something that will please Him. And that when you have completed this mission, that God will have a smile on his face...that you will have caused, albeit small, a happiness to God Himself! How great is that?

"Really, dad?! We can make God happy?" One of our boys enthusiastically exclaimed. "Okay, let's do this!" Another chimed in in thoughtful agreement.

To make a long story short, during the next few months our nightly ritual was to practice focused memorization followed by mock performance in front of the family. Grudgingly and slowly



at first, but as they became better and better in memorizing, their doubt and uncertainty were replaced by faith and confidence. And soon, they memorized all 10 verses, plus the extra bonus part of entire Romans 8.

Each time when our sons were reciting the verses in front of the judges, my wife and I were lost in amazement. How do they recite so well without missing a beat? Their recital was music to our ears. Hallelujah, praise the Lord!

Best part is...our boys have started to understand and apply what they have memorized.

"Dad, do you know what the secret to success in life is? It's right here in Psalm 1, it says whatever they do prospers!" My son was referring to that person who delights in God's words and meditates on them night and day. My son gets it now.

Memorizing the Bible fills our mind with truth, helps us to overcome sin and temptation, helps us to thrive during times of testing, and also helps us to make wise decisions in everything we do. I can never give anything better than the gift of God's words and wisdom found in the scripture.

Upon successfully completing "InChrist Shema Scholarship," I told my sons, I am certain that you have played a role, albeit small, in causing a smile in God Himself! How great is that?

| Kyle Yi |

■ College Bound

*"I want to be a man of God that fully trusts in Him"*

Oh man... high school... High school was tough. It's only four years long yet it is such a huge part of one's life. It produces core friends, memories, and so much more and it seems so pertinent, and it is, but it's not everything to life. High school is important, it really is. Being a student is a specific role that God has given us and it is our job to fulfill that role as servants. But it is also our duty to

worship God. Whether that's through serving at church or studying for God, but just by doing everything for God. 1 Corinthians 10:31 reads,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This is a verse that I tried to live by in high school but I couldn't. I lived my days living for myself. I planned my days for myself and lived according to my own will not obey-

ing God. As I go into college, one of my goals is that I would live my days following God and trusting in Him. I want to be a man of God that fully trusts in Him and can freely declare that I am fully devoted to Him.



Eric Lee

■ Mom and Daughter Letter Exchange/ Monica & Jane Kim

*To my beloved and favorite daughter*

Wished we could've video chatted last night, but it was better that I kept my eyes on the road while driving, haha. It sure sounded like God has been giving you some extraordinary experiences in Boston already! Expect more!

I don't have an ounce of doubt that your heavenly Father will surround you with great professors and wonderful friends as you continue your second year at Berklee on campus now.

You're 3,000 miles away from home, but I feel such peace! Do you know why? Because God is watching over you as the apple of his eye and loves you more than I ever could even as your mom. My eyes never left you from the moment you walked through the automatic doors at the terminal and while you were standing in line to check in your bags. When you began running to ride the escalator and get to the safety checkpoint, I never lost sight of you until you got off the escalator. So how much more so will your heavenly Father, who is omnipresent and omnipotent, be watching over you every step in Boston?

As I think of you walking along the streets of Boston, there's a secret to the state of peace in my heart t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as a tip. I draw an image that you're a heroine whose got a superpower like one of the lady avengers in the Marvel series and that your superpower is always a layer of atmosphere or protective bubble that surrounds you wherever you go. Your superpower is the Holy Spirit, and the protective bubble is God's heavenly hosts surrounding you every moment and everyday. Fear not, my precious, because as long as you're stuck like glue to God your heavenly Father will have your hand folded into his hands as he strides with you in all your endeavors.

Remember the Hebrew word zakar from the EM sermon? In the moments you have doubts or need a boost of faith, ZAKAR! Remember all that your heavenly Father has done for you to this day. In moments of stress, anxiety and fear, pray God's Word -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 Phil. 4:6-7. And, no matter how busy things get, remember to start your mornings by paving a landing strip for God to come and land on your heart so that he can do the things he wants to have unfold in your life from one day to the next. You are a walking temple of God, sista!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Jane.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Jane. And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Jane. I love you! Love, Mommy ^^



*To my wonderful mother*

I am indeed having a good time here! I'm starting to form a habit of starting and ending my days with the devotional book you got me.

God is definitely blessing me with so many opportunities, and I'll forever be grateful for every single one of them. Housekeeping is definitely one of those blessings, haha. God knows all too well how I can get when I'm overwhelmed with my studies. I'm glad I won't have to think about taking out the trash or washing my own sheets, hehe.

God already blessed me with wonderful friends and professors during my first year online, so I wholly trust in the Lord and His plans for me. I've witnessed firsthand how He is aware of my learning style, and in turn, He gifted me with amazing professors who helped boost my confidence. He also taught me how to overcome obstacles. He prepared me for the life I'm going to have here at

school. God is truly good and all-knowing. He already gifted me with a sweet, kind, and faithful Christian friend! She's active in church and wants to pursue musical therapy to help others. Isn't her dream so sweet? I think I can learn a lot from her spiritually, especially since she's the leader of the women's small group in her Christian club.

Also, I'm not going to lie, I do miss home. I miss having some good Korean food, haha. Some of your 김치찌개 sounds really good right now. I searched for Korean restaurants on Yelp, and apparently, the Korean restaurants aren't the best ㅋㅋㅋ 돈 아까우니까 I'm going to have lots of Korean food when I'm back!! The truth is, when I got out of the car at the terminal and hugged you, I teared up a lot. I tried my best to hold it in because I didn't want to cry in front of you, haha. I wanted to bid a happy farewell because I'll be seeing you again soon. After all, it's just a "see you again," not a "goodbye."

I think it was God's plan for us to have been so busy with our last minute preparations. I know for a fact that I would've cried my eyes out if we weren't in such a rush, haha. I even cried when I got your message that you left after waiting and watching us run up the escalator. 엄마는 쿨하지만 난 그러지 못 해서 조금 울었어ㅎㅎ. 난 눈물이 많아서 I cried reading your letter, too. HAHA. Although I am teary-eyed and not as calm and collected as you, I have no doubt that God will keep us safe even when we're 3000 miles apart. He is indeed omnipresent and omnipotent - there is nothing that He can't do. The verse that comes to mind is Luke 1:37 KJV "For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God will protect our family, and He will continue to do amazing things through you, me, and 오빠. I believe in God and His will for us. I love you, God bless you, and I'll see you soon!~

■ 주안예배마장학회 '성경암송' 후기

울며,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과 씨름

먼저 성경암송의 긴 여정위해 함께 하시며 인내와 연단으로 훈련시키시고, 끝까지 암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지식이 담긴 책을 암기하는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이기에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할 때마다, 같이 단어를 찾아가며 한자, 한자 외워가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하루하루 2절씩 외우며 다음날은 전날 외웠던 말씀과 새로 외우는 말씀을 같이 외우고, 반복하자 반복이 거듭되니 5달이 지나자 명확하게 암송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초에는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딸래미는 2장씩 외워야 5월말까지 다 끝낼수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절도 많고 단어가 어려워 암기가 힘들었을텐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느날은 졸린눈을 비비며 외웠고, 가끔은 너무 안 외워진다고 평평 올 때는 저도 속상해서 기도하며 같이 울었던 날들이 떠올려집니다.

12학년에 올라간 아들은 머리가 컸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외우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 애만 태울 때도 많았고, 짜증을 낼때에는 저도 화가 나 소리도 질렀지만, 마지막에 에세이도 진지하게 쓰고 말씀도 더 외우려고 애쓰는 모습에 흐뭇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시리라 믿습니다. 제 자식이기 이전에 참 주인이시고 부모이시니까요..

부디 이 아이들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자들을 소멸시킬 능력을 갖춘 아이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때론 잘 외워서 또, 때론 잘 외우지 못해서 울고 웃었던 날들이 지나 결과를 따라 장학금은 수여되겠지만, 어려운 성경 말씀을 외우며 같이 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성은 집사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이번 주안에 쉼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현주 집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의 중요성은 알지만 매일의 일상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외우면서 아이들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기도를 하며 적당한 채찍과 격려,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게 하였고, 포기 하고 싶을 때에도 정말 귀한 것들을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붙들때마다 언약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아이들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이들이 살아가는 길에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김헬렌 집사 · 1면서 계속> 동부로 출장을 다니던 나는 집에 돌아와 조금씩 변화가는 아들을 보게되었고, 늘 재빨재빨 말이 많던 아이는 말도 없어지고 웃지도 않고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브랜든에게 물었다.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아이의 대답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엄마 내가 4학년되면 풀타임 맘 해주는거 맞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거 같았다.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지껏 달려왔는데, 난 그 약속을 까먹고 있었다. 그때 브랜든이 3학년이었다. 또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와서 미안함에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후 나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사업을 정리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부업으로 해오던 SAT 과외와 입시 상담을 시작했고 에프터스쿨도 겸해서 학원을 차리게 되었다. 드디어 아들이 4학년이 되었고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픽업 간다는 약속을 지킬수 있게되었다.

당시 너무 잘되던 사업을 접고 수입이 90% 나 줄어든 나는 우울증이 찾아 왔다. 내가 할수 있는거라곤 하나님께 매달리는것

밖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게 감사할 때도있을 정도였다. 난 무슨 기계처럼 몸은 늘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흩어져 100%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았다. 하지만 브랜든은 교회에서 너무 잘 적응을 했고 엄마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행복해 했다. 그렇게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 그후로 섬기던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믿음과 멀어지려는 찰나에 우연히 주안예교회 CD 한장을 듣게 되었다. 믿음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던 나에게 찾아온 생명의 빛 같았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느꼈다, 영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다. 영적인 새삶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채 난 그냥 살고 싶어졌다. 그렇게 주안예교회를 섬기게되었다.

교회생활을 좋아하던 아들은 나보다 믿음이 강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브랜든을 지켜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부끄러웠다. 내 믿음도 아들을 쫓아 강건해질 때쯤, 사단이 존재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어느날, 우리 모자가 너무나 엄청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정말이지 모든것

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때... 브랜든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다~ 아서 엄마, 모든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거야". 난 그자리에서 주저 앉았다. 언제 아들이 이렇게 커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구나 싶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화 한번 안내고 불평 한번 없이 웃던 엄마를 위로해주는 아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나한테는 너무나 과분하고 넘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이 이제 내 곁을 떠나 대학을 갔다. 여지껏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 주었다고 착각했던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깨달았다. 정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지난주에 아들을 버클리 기숙사에 내려주고 왔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뒤돌아 걸어 들어가는 아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계속 멀어지는 아들 뒷모습을 보고 있는걸 아는지, 아들은 계속 뒤돌아 보면서 나에게 손을 흔들어준다.

기숙사를 떠나면서 아들한테 성경구절 하나를 남기고 왔다. 빌립보서 4: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한다. 아들!

■ 주안예배마장학회 '성경암송' 후기

혼란한 세상, 영혼의 소중한 길잡이

코로나로 영과 육의 모든 것이 멈춰져있는 상황에서 쉼프로그램은 너무나 기쁜소식이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함께 한다면 분명 이번기회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속에 말씀을 채울 수 있으리라는 부푼 설렘과 기대로 공부는 안해도 되니 말씀을 암송하자며 아이들을 설득하여 호기롭게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편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과 입으로 암송을 척척해내는것이 너무 예쁘고 기특도 하고 또 일상속에 갇힌 제게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반으로 향해갈수록 무수한 이유들과 사정이 생기고 그야말로 말씀을 외우는 시간이 영적전쟁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대체 왜 외워야하나고 도도리표처럼 묻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움직이는 검과 같기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 부터 너희를 지킬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거라고 계속 설명하고 또 다독였습니다.

아... 정말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유혹과 낙심도 들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

이 살아 내게 공격과 방해를 일삼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히려 각오를 하고 버텨줍니다.

이제와 되돌아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서로 입을 모아 외운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시국에서 아마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의 거리가 더 멀어졌을 것임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순수한 자의로 시작했다기 보다 저의 권유와 설득 그 중간으로 시작했기에...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정확히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알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라도 말씀을 읽게 하고픈 제 바람이 더 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외우고 읽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더라도, 때로는 짜증도 내고, 이 과정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어 잘 심기워지고, 혼란한 세상속 영혼의 양식과 길잡이가 될줄 믿습니다.



이현영 집사

심비에 새겨진 말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예배만 드러지고 있을 매일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우리 시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전기숙 권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암송하며 아이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새겨지길 기도하며 외운 것을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외운 말씀과 저의 돌보기를 들고 저에게 오던 모습도 선합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로 살기를 기도 하였기에 암송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사심으로 시작했지만 3월 말에 로마서 8장 엑스트라까지 끝내었을 때 그 기쁨과 대견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음을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심비에 새겨져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시현이가 되길 소원합니다.

■ 특별기고

대학 새내기 부모들에게 주는 조언

매년 9월이 되면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입학이 있고 부모님들은 부푼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자녀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숙사 입주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이는 대학 생활 중 신앙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될 사항을 소개 하고자 한다.

A. 70%의 대학생 신앙생활 이탈

미국에서 발간되는 기독교계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이 대학 기간 중 70% 정도의 학생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별히 신입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대학생활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은 캠퍼스에서의 첫 72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신입생들이 처음 누구를 만나 어울리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이 72시간의 골든타임에 가능한 빨리 학생 자신에게 적합한 캠퍼스 사역에 연관된 씨름이나 학교 조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고 대학시절 영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음은 자녀들의 입학을 돕기 위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처음 방문 하여 기숙사 등 숙식할 수 있는 거처를 정할 때 자녀들이 출석할 교회도 결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문의하여 자녀들이 입학할 지역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를 추천받아 자녀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여 교역자들을 만나보고 특별히 대학부나 EM 담당교역자와 상담하고 가능하면 등록까지 하면 공백기간 없이 교회에 출석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낮은 지역에서 마음에 위안도 받고 학교생활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B. 대학 시절을 영적 성장의 기간으로

“대학에서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첫 사람의 기간” 이었다고 고백하는 글을 읽어 본 적이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이었다 대학부터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때까지 한 번도 신앙적으로 뜨거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필자가 교회교육에 봉사 할 때에 읽은 한 통계에 의하면 대학 시절이나 청년기에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30% 정도가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결혼 후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할 시기에 교회를 찾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 나형철 기자 |

■ 주안예수를 마치며

회복과 섬김의 자리로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안예수 1권을 시작할 땐 그동안 일에 파묻혀 미루고 미뤘던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건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는걸 3권을 마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해랑 권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동안 어그러지고 뒤튼던 하나님에대한 믿음과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며 소원했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가정이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하나님께선 이웃사랑 즉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섬김, 청지기의 삶... 온통 나로 가득찼던 제게 광야의 삶은 결코 녹록진 않았습니. 끊임없이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옛사람의 본성과 변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허다한 나의 허물을 덮으신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십니다. 순종하며, 사랑하며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순종의 삶' 사명감의 무게 느껴

18주의 긴 여정을 지나 주안에 삶 3권을 마치며 그동안 훈련 받은 내용들이 드문드문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1권에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와 지식, 2권에서 보다 더 실질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와 기술, 그리고 3권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깊이 들어간 교리적 내용에 치중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권의 훈련은 평소에 알고 있다고 생각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상기시키는 기회였고 2권 훈련은 평상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사용해야하는 도구들, 기도하는 법, 성경읽는 법, 복음을 전하는 법 등등 실질적인 방법들이지만 제대로 배운적이 없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기회였습니다.

3권의 훈련은 좀더 심층있는 교리 내용을 다뤘기에 더 어렵게 느껴졌고 조금은 힘들었던 훈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용이나 훈련이 힘들었다기 보다 내용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책임감과 주어진 사명감에 대해 더 생각하게 했고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되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할 자세와 하면 안되는 일의 구별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하는 무게감마저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진다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과 같이 세례나 성찬의 의미와 상징하는 것에 대한 훈련도 새롭게 느껴졌던 기회

였습니다.

이전에 믿음 생활을 하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저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줄 알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주고 살면 잘 사는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마음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 들었고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고 동의가 되지 않았으며 매우 불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이번 주안에 삶이나 주안에 씨앗, 주안에 빛과 같은 평사원 훈련들을 하나하나 마쳐가며 배움의 시간들을 채우고 조금씩 실천에도 옮기면서 이제는 동의가 넘어서 그 이상의 확신으로 마음에 다가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진정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죄인일 뿐인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셔서 더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굳센 믿음이 생겼기에 마음에 안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한선 집사



■ 포토 에세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역대하 7:14). 겸비하다'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 혹은 "엎드리다" 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겸비함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에도, 찬양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회개할 때에도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비함이 있어야 비로소 그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EM 찬양의 밤에 참석한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비쩍 엎드려 기도 드리고 있다.

■ 음악 산책/ 모차르트 vs. 살리에리

질투의 화신이라니... '누명 쓴 살리에리'

'살리에리 증후군(Salieri syndrome)'은 같은 분야의 탁월한 천재를 향해 시기과 질투,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모차르트의 요절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의 천재적 재능을 시기한 스승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것이다. 시신을 부검했던 의사가 독살이 아니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발빠르게 퍼져나갔고, 1830년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의 희곡에까지 소재로 쓰이게 된다. 살리에리의 모차르트 독살설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가장 큰 계기는 1984년 밀로스 포만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의 흥행이었다.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의 동명 희곡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제 5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흥행 성적을 거뒀다.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영화의 상상력은 사실로 인식되며, 살리에리는 질투에 눈이 멀어 모차르트를 죽게 한 스승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게 된다.

안토니오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는 38살에 오스트리아 최고 직위의 음악가인 카펠마이스터에 올라 사망 1년 전인 74살까지 직위를 유지



할 만큼 뛰어난 음악가였다. 그가 작곡한 오페라가 흥행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당시 빈에서는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의 인기가 훨씬 더 좋았다. 황제의 신뢰를 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살리에리를 오히려 모차르트가 질투하는 내용의 편지가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부터는 음악의 조류가 바뀌는 상황에서 자신의 스타일이 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받아들이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대폭 줄였고,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 작곡가를 육성하고 음악교육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살리에리는 당시의 기록이나 후대의 연구를 볼 때, 기본적으로 관대하고 원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대의 라이벌이라 불리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협업하며 교류하기를 즐겼고, 어려운 상

황에 처한 음악가들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앞장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제자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의 도움 덕분에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체르니, 마이어베어 등 쟁쟁한 음악가들이 모두 그의 제자였으며, 심지어 모차르트의 부인인 콘스탄체는 독살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에리에게 보내 배우게 했다.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자식을 맡기는 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후대에 계속된 연구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함께 작곡한 곡들이 발견되고 공동연주를 한 흔적들도 다수 발견되며, 둘은 라이벌이 아닌 동료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학계의 정설로 증명되고 있다.

살리에리는 생전에 유럽에서 손꼽히는 음악가로 명성이 대단했지만 사후에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차르트와 더불어 그의 이름은 항상 언급되고 있고, 잘못된 누명도 조금씩 벗어가는 중이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 황성남 집사(성가대 지휘자) |



영커플 2목장 비치 피크닉

8월 28일 토요일, 영커플 2목장(목사: Tom, Laura Park 집사)에서 처음으로 비치 피크닉을 왔습니다. 처음엔 아이들과 함께 가야해서 걱정도 됐지만 막상 나와보니 시원한 바닷바람과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에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사람들과 서로 서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낚시도 즐길 수 있어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 가요!!~ | 장주성 성도 |



'주안에 핸디맨'  
새벽기도 후 봉사 손길

대면예배가 재개되었지만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코로나 기세에 주일을 제외한 주중 교회 캠퍼스 분위기는 한산한 편이다. 그러나 교회 구석구석을 치우고 수리하는 손길들은 이어진다. 밸리채플 새벽기도 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스케줄에 따라 고장난 정원 스프링클러를 교체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있는 오래 된 짐기들을 내다 버리고,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혼자서는 업무를 못 내는 쌓여 있는 작업들을 함께 하니까 가능하다.

■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산속 한옥마을 '와 멋져'

올해 여름 아버지의 팔손으로 5년만에 방문한 한국에서 이 천---경주---부산---거제---여수---신안---전주---완주---서울 코스로 6월20~6월26일 까지 온 가족이 여행을 다녀왔다.

마지막날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한옥스테이로 유명세를 타면서 BTS도 가보고 반했다는 전주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오성 한옥마을을 꼭 들르고 싶어 찾았다. 다행히 우리가 묵었던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1시간 20분 거리, 한옥마을에서 또 한옥마을로 간다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주는 도심에다 인위적으로 계획해 한옥마을을 조성한 것이고, 오성한옥마을은 구비구비 산을 차로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이런 산속에 무슨 한옥이(?) 싶을때쯤... 눈을 비비고 다시 뜰 정도로 멋진 한옥마을이 산속 곳곳에서 짜~잔 하고 등장한다. 나무와 돌과 한옥이 너무나 멋져서 와~~하는 감탄사가 절로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소양고택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하루쯤은 모든 전자제품들을 내려놓고 자연을 벗삼아 책을 읽으며 차라도 한잔 마신다면 무엇이 부러우리오~소양고택은 투숙객에게만 투어가 허용되지만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자니 감사하는 마음에 절로 힐링 하는 시간이 되었다.

| 이성은 기자 |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터,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영,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8월의 맘모스, 환상적 물빛깔

지난 6월에 갔던 맘모스 레이크는 산봉우리 마다 하얀 꼬깔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위를 자박자박 걸어 크리스탈레이크 까지 가곤 했었다.

아름다운 설산을 기대하며 8월에 도착한 론과인 에서의 휘트니산은 하늘을 찌를듯한 시애라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1만피트의 침봉과 아름다운 호수, 골마다 흐르는강과 시내, 우거진숲, 그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동물 등이 알프스에 버금가는 경치라고 한다.

맘모스 레이크라면 겨울에 스키타러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여름에 맘모스 레이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공부한 것이 있다면 지구의 생성과정과 변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터키의 카묵카레처럼 생긴 작고 앙증맞은 노상운천, Earthquake Fault 지진대에 찍 갈라진 땅속은 마치 악마



의 입 같았다. 근처에 있는 Inyo Craters 분화구는 600년 전 우주의돌이 지구로 떨어지며 생긴 분화구인데 분지 안에 깊고 깊은 옥색의 호수는 마치 백두산의 천지연 같았다.

뿐만 아니라, 화산폭발직 후 빙하가 닳이면서 사각형이나 육각형의 검은기둥들이 하늘을향해 뾰족히 세워진 Devil's Postpiles 의 기기묘묘한 돌산은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이다. 여름철의 한시즈만 오피한다는 레인보우폭포는 주차장에서 왕복 6마일정도는 걸어야한다. 100피트 높이의 폭포에는 햇빛이 비칠 때 쌍무지개가 뜨는 곳이다. 폭포에 도착해서도 계곡까지 내려가야 받을 담그고 아름다운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다. 조심 조심 가까이 간 폭포 아래서의 샌드위치 점심은 유난히 맛있었다. 폭포소리와 간간이 날아오는 이슬비를 맞으며 또 발장구도치며 쉬는 것은 몸과 마음이 완벽히 회복됨을 느꼈다.

지난 6월에 갔었던 맘모스레이크를 또 가게된 이유가 있었다. 수많은 호수들에서 한가하고 여유롭게 뱃놀이하는 여행객들을 보면서 울여름이 가기전 나도 카누를 타고 싶었다. 빙하가 녹아서 호수를 이룬 수많은 호수들이 모여있는 맘모스레이크 에서 카누를 타는 일은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해 지는 것 같았다. 레이크메리에서도 컨빅트레이크에서도 카누를 타고 즐기면서 호수마다 아름다움이 다르고 물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을 기억하며 L.A.로 돌아오는 길에 비숍에서 사운 특별한 블루베리잼에 맞은 긴 여운을 남긴 맘모스레이크의 기억을 생각나게 한다. | 임용자 기자 |